

남쪽끝 항구도시의 유서깊은 老舖

2대에 걸쳐 45년 전통 이어온 忠武 '이문당서점'

부산에서 쾌속정 엔젤호를 타고 한시간반쯤 물살을 가르다보면 푸른 물결 위로 하얀 띄움박이 펼쳐진 충무해역에 들어선다. 그러면 도시 전체가 알맞게 간에 밴듯 바람 일렁이는 충무이다. 바로 그 약한 소금기 때문일까. 충무의 첫인상은 탄력이 느껴질 만큼 경쾌하고 역동적이다.

박경리의 소설「김약국의 딸들」, 그 3대에 걸친 비극적인 배경으로만 이 도시를 기억하고 있던 이에겐 충무의 이같은 첫인상은 엄청난 사고의 반전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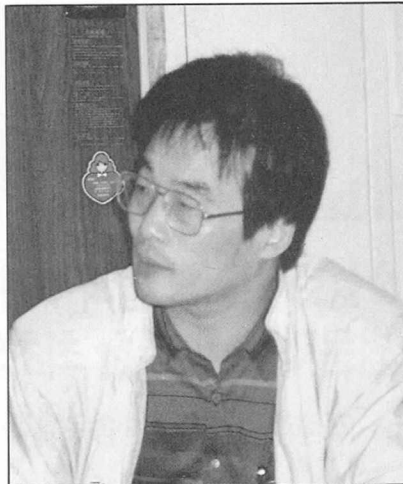
“어디로 갑니까.”

“서점을 찾아가는데, 혹시 이문당이라고 아세요.”

“알다뿐입니다. 이곳에선 제일 크고 오래된 서점인 걸요. 나도 중학교 땐 책사러 곧잘 갔었지요.”

40쯤 돼보이는 택시운전사의 시원스런 대답이 낯선 도시를 찾아나선 불안감을 일시에 쫓아낸다. 인구 10만의 도시, 그중 70~80%의 생계가 바다와 관계 맺고 있는 도시, 그보다는 박경리, 유치진, 유치환, 김춘수, 윤이상 등 개성 강한 예술가로 더 유명한 도시가 바로 충무라는 게 택시기사가 들려준 자랑이자 정보의 대략이었다.

이문당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 월간잡지, 참고서, 인문과학, 소설 등 작은 아크릴 간판들이 우선 눈에 띈다. 깨끗하게 새단장된 내부 분위기가 도저히 45년 역사를 느낄 수가 없다. 다만 1층 90평, 2층 30평의 큰 규모가 단시간 내에 인구 10만의 지방도시에서 세워진 않았을 거란 짐작만 지난 세월을 짐쳐볼 수



김병기씨.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 뿐이다.

1층은 주로 참고서, 단행본 중심이고 2층은 전문기술 도서 및 예술서적으로 구분, 진열되어 있다. 30분 거리 안에 있는 인근 고성, 거제 사람들도 이곳의 주요 단골들이지만, 상식에 비취보았을 때 전문서적의 수요층이 대학생 이상이고 보면 대학이라곤 동영수산전문대학 하나뿐인 이곳에 2층의 책들은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가보다 가끔씩, 정말 필요에 의해 들르는 소수 구매자들을 위한 배려임이 쉽게 눈치챌 수 있었다.

한 지역의 문화수준의 척도는 그 지역 서점에서 팔리는 책의 종류에서도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문당의 일반서적 대 참고서의 판매비율은 2:8, 참고서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책수요의 계층이 그다지 폭넓지 못한, 지역서점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부담을 이곳 이문당도 짊어지고 있다.



이문당서점의 매장. 1, 2층을 합해 120여평이다.

“바로 여기에 지방서점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기 때만 반짝하고 마니까요.”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올해로 15년째 이문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기(42)씨의 말이다. 지난 85년 20여평 크기의 서점을 지금의 1, 2층 120평 규모로 넓힐 땐 책값보다 차비를 더 들여 대도시로 나가던 소수 소비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함에서였다지만 전산화라든지 서점인으로서의 꼭 이뤄보고 싶은 대형·전문화는 ‘지역’이란 조건의 열악함 때문에 욕심만 낼 뿐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게 그의 토로이다.

이문당의 역사를 거슬러올라가면, 부친 김차석(70)씨가 해방 이듬해 10여평의 규모로 이 자리에 서점을 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6·25 때엔 전란을 피해 이곳으로 유수의 출판인·문인들이 모여들어 그때의 두터운 교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다.

수려한 풍광 때문일까. 유달리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충무에서 이곳을 들리지 않은 예술가가 없다는 게 이문당의 큰 자랑이자 긍지다. 그러나 10여년전 화재로 인해 창고와 매장이 몽땅 타버리는 재난을 겪기도 했다.

몇년전부터는 부친의 호를 딴 성암장학회와 성암독서회를 만들어 서점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을 꾀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성암 독서감상문 모집을 독서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일부에서 “책 팔아먹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斜視로 보아 한때 힘이 들기도 했다고 털어놓는다. 그러나 주변의 이러한 몰이해도 책사러 들른 백발 성성한 노인의 “아직도 그 주인이 하느냐”는 말 한마디에 뿌듯한 보람으로 그만 바뀌어버리고 만다고 서점인 김병기씨는 웃어보인다. —정혜옥 기자

사랑은 자유하는 삶입니다

• 정은하 엮음/값 3,000원

칼릴 지브란과 메리 헤스켈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

향기로운 영혼의 소유자 칼릴 지브란과 그 영혼을 눈뜨게 한 메리 헤스켈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에 이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삶의 진실과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속삭이는 젊은 영혼의 울림들 — <사랑은 자유하는 삶입니다> 느끼십시오! 그 가슴 벅찬 감동을 분명 또다시 누리실 수 있습니다.



110-220 서울시 중로구 광판동 150번지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1
팩시밀리 739-2129

- 칼릴 지브란과 메리 헤스켈의 영혼의 속삭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정은하 엮음/값 2,000원
- 위대한 정신 칼릴 지브란과의 만남 모래·물거품 정은하 엮음/값 2,000원
- 칼릴 지브란의 산문시 고요하여라 나의 마음이어 나희덕 엮음/값 2,000원
- 칼릴 지브란 우화집 어느 광인의 이야기 권국성 엮음/값 3,000원

늘·개·어·있·는·점·은·목·소·리·로